

의도적인 것과 의도 넘어서의 것

1985년 5월
이일 (미술평론가)

이강소와 관련해서 나는 잊지 못할 한가지 추억을 가지고 있다. 1975년의 제 9회 파리 비엔날 때의 일이다. 이 비엔날에의 그의 출품작품은 기상천외의 「닭의 퍼포먼스」 작품이었다. 전시장 바닥에 회분을 넓다랗게 깔고 그 한가운데에 말뚝을 세워놓고는 닭의 다리를 끈으로 묶고 그 또 한쪽 끝을 말뚝에다가 매어 닭을 빙빙 돌게 하는 「작품」인 것이다. 하기는 현장에서 닭 한 마리를 구한다는 것부터가 난감한 일이어서 수소문 끝에 전시회장 수위가 자기집 닭을 가져다주어 간신히 성사가 되었다. 그 뿐만도 아니다. 술한 카메라맨들이 모여들고 종당에는 이강소와 나는 프랑스 국영 T.V.에까지 나가야하는 「곤욕」을 치렀던 것이다.

이 <조용한 사건>은 하기가 지극히 사사로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 그의 그와 같은 행적은 결코 일시적인 착상의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작품 행위 내지는 작업 속에 일관되어 깔려 있는 작가적 기본 자세의 한 표명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그동안의 작업 과정을 눈 여겨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이다.

이강소는 흔히 말하는 「한 우물을 파는」작가는 아니다. 그는 기질적으로 실험의 작가요 그가 지향하는 예술은 그 어떤 정의 그 어떤 기존의 방법. 그 어떤 반복도 거부하는 끊임없는 극복의 예술이다. 아울러 실제로 그의 제작 활동 반경도 회화, 판화를 비롯하여 입체, 환경적 인스탈레이션, 비데오 그리고 퍼포먼스에 이르는 광범위에 걸친 것이다.

이번의 개인전에서 이강소는 그의 새로운 시도를 회화와 오브제 작품으로 집약시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도는 다같이 형태적인 차원의 것이라기 보다는 창조의 프로세스 그 자체와 관련된 것이며 표현된 것보다는 제작되어 가는 과정의 의미와 관련된 것이다. 요컨대 계산된 의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의도 넘어서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여분」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 「여분」을 우리는 어쩌면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겠고 또는 자동기술적인 자발성이라는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도 그의 작업에는 「닭의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본래의 퍼포먼스 (행위, 동작) 적인 요소가 강하다. 예컨대 관객이 작품의 일부를 이루거나 작품에 직접 참여하는 인스탈레이션, 또는 물감이 튜브에서 직접 빠져 나온 상태를 영상화한 판화작품 등이 그러하다. 이처럼 하여 그의 작품의 우연 또는 우발적인 사건을 작품의 적극적인 요소로 삼음으로써 미술을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몰고가는 것이다.

이강소는 캔버스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명확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점토를 빚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거의 무목적적으로 화필을 휘젓는다. 그것은 마치 빈 캔버스가 거기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나간다는 투다. 흙을 빚을 때에도 그는 마치 밀가루를 반죽하듯 주무르고 그것을 토박으로 잘라내어 서로 쌓아 올리거나 아니면 서로 이어 붙인다. 그리고 손을 놓는 것이다.

이처럼 하여 그는 「그린다」 「만든다」는 행위의 연속, 반복 속에 창조의 의미를 해소시키고 있으며 그와 같은 행위의 끊임없는 再檢登(재검등)을 통해 그의 작품은 주어진 미디어와 맞부딪치며 우리의 의도의 한계 훨씬 넘어의 그 어떤 「상황」을 여시(予示)해 주고 있는 것이다.